

03월호

Contents

연대제안서 _ 자치법제정 2

2016 장애인활동지원 가산수당 지급 안내 4

자립생활주택 문화체험 (뮤지컬 <투란도트>관람) 10

강북구청 향의 방문 12

자조모임 트림팩토리(보치아/종이접기)를 4월4일부터 시작합니다. 14

주몽재활원에 다녀와서..... 15

집단ILP “배트맨 대 슈퍼맨” 후기 17

3.1절에 봉하마을 기행 19

이달의 정보 20

이달의 시 22

강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CMS자동이체 신청서 23

광고 24



연대제안서

자치법제정을 통한 권리 실현!!!

강북구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조례&발달장애인지원조례제정운동에
연대를 제안합니다.

□ 연대제안 목적

인간이 동물과 확연히 구분되는 특징은 자신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자신이 원하는 바를 선택하고 결정하며 자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살아가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장애로 인해 물리적 이동 및 행동에 제약을 받는 대다수의 장애인들은 시설이나 집안에서 자신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자신의 삶에 대한 목표나 꿈도 없이 생물학적으로 살아 있는 생명체로서의 삶만 살아왔습니다. 그러던 중 장애인도 인간이며, 자신의 생각과 의지로 자신의 삶을 계획하고 실천해 나갈 수 있어야 한다는 자립생활이념이 도입되었습니다. 이는 더 이상 장애인이 장애를 이유로 시설이나 집안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지역주민과 더불어 살아야 한다는 의미도 내포되어 있습니다.

□ 서울시내 타 자치구의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조례제정 현황

자립생활 이념이 도입된 이후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자립생활센터들이 설립되었고, 이 자립생활센터들은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이 실제적으로 보장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제정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왔습니다. 그 결과 서울시의 경우 2008년 강남구를 시작으로 성동구, 중구, 동작구, 양천구, 서초구, 관악구, 성북구, 종로구, 구로구, 용산구, 동대문구, 서대문구, 노원구, 은평구, 영등포구, 마포구, 광진구, 강동구, 강서구, 중랑구, 금천구, 도봉구 순으로 2016년 현재까지 총 23개의 자치구에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강북구, 송파구를 제외한 서울시내 모든 자치구에 조례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 중증장애인자립생활 조례제정의 의의

조례제정은 풀뿌리 민주주의사회에서 지역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입법활동으로써 주민의 의사와 욕구가 그대로 반영된 법적 장치가 마련된다는 점에서 매우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지역사회에서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장애인 당사자의 의사와 욕구가 반영된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이라는 적극적인 조치가 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강북장애인 자립생활센터에서는 서명전, 캠페인, 퍼포먼스 등을 통해 주민이 직접 발의하는 자립생활지원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 발달장애인지원조례제정의 의의

이와 더불어 발달장애인 지원조례도 함께 제정하고자 합니다. 그 동안 발달장애인은 장애운동 영역에서도 주체세력이 되지 못하고, 소외되어 왔습니다. 발달장애인 당사자보다는 그들의 부모가 직접 그들의 권익을 대변해 왔습니다. 당사자가 자신의 삶의 주체가 되어야 하고, 매사를 스스로 결정하고,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는 자립생활에서 발달장애인이라고 예외일 수 없습니다. 발달장애인도 자기표현에 다소 어려움이 있지만 엄연히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비장애인, 타장애인과 마찬가지로 인간이라면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를 누리며, 그들의 개별 상황에 욕구에 부합하는 서비스제공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 타자치구의 발달장애인지원조례 현황

본 센터에서는 타장애유형에 비해 소외를 경험하고 있는 발달장애인당사자들의 실질적인 권리보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발달장애인지원조례제정을 하고자 합니다. **발달장애인지원조례 또한 자치구별 제정현황을 살펴보면 2014년 강남구를 선두로 관악구, 구로구, 노원구, 동대문구, 서대문구, 양천구, 영등포구, 중구, 중랑구 등 총 10개의 자치구에서 제정되었습니다. (양천구, 중구의 경우 “지적, 자폐성 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라고 명시하였음)**

□ 연대제안 요청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일은 특정 한 기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작은 물방울이 모여 바위를 뚫듯이 여러 뜻있는 지역주민, 관계기관 등의 협조와 연대를 통해서만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귀 기관의 동참과 연대를 제안 드리고자 합니다. 중증장애인자립생활 및 발달장애인 지원이 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본 센터에서 진행하는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조례&발달장애인지원조례제정을 위한 서명전, 캠페인, 퍼포먼스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 장애인활동지원 가산수당 지급 안내

1 개요

1 목적

○ 최중증장애인 등 활동보조인 연계가 어려운 수급자에게 활동보조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가산수당을 지급하여, 활동보조인의 최중증장애인 기피현상을 완화하고, 수급자와 활동보조인의 연계를 활성화

2 근거법령

○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적절한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여 장애인이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활동지원사업이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매년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3 지원대상

○ 인정조사점수 440점 이상인 자 등 활동보조인 연계가 어려운 중증장애인

* '연계가 어려운 중증장애' 여부 판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3. 지원대상 선정 참고

4 사업기간

○ 2016년 3월 16일 ~ 12월 31일(10개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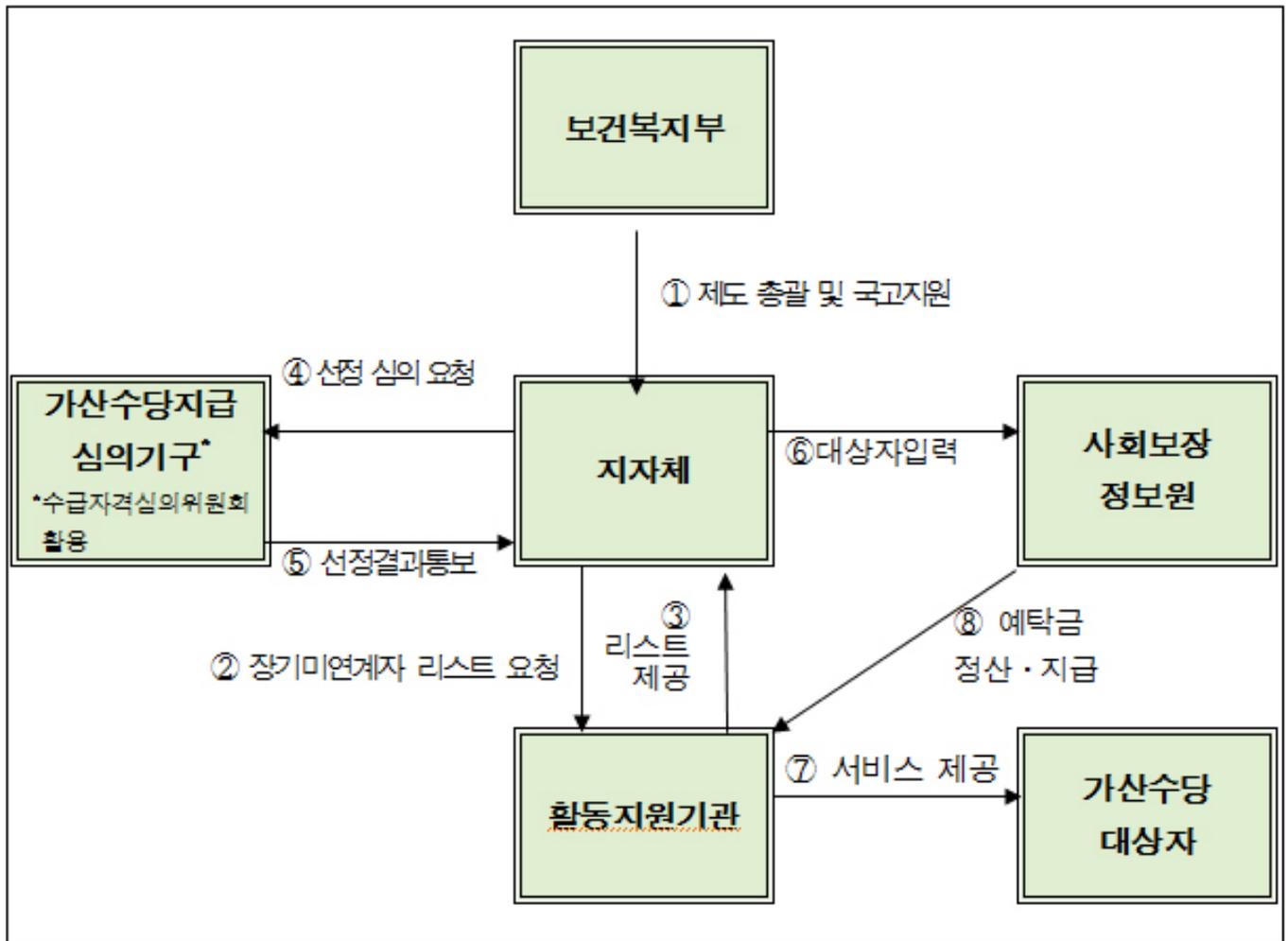
* 2017년 이후에도 예산확보 및 계속사업으로 추진 예정

5 추진절차 및 향후 계획('16년)

○ 전산시스템 구축(2~4월), 가산수당 적용 및 사업안내(3월~)

○ 최초정산(4월), 중간점검(7월), 결과보고 및 보완(11~12월)

1 사업 추진 체계도



2 사업 주체별 역할

○ (보건복지부) 가산수당 대상자 및 금액 등 제도 설계·관리·감독 등 총괄, 국고 지원

○ (지자체) 장기 미연계자 발굴 및 가산수당 대상자 선정

○ (활동지원기관) 장기 미연계자 보고, 장애인-활동보조인 연계, 서비스 제공

○ (사회보장정보원) 가산수당 지급 시스템 구축, 가산수당 정산·예탁금 지급

1 대상자 선정

○ 1순위 : 인정조사점수 440점 이상의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

* 인정점수 440점 이상일 경우 1개월 이상 지속하여 급여를 제공한 활동보조인에게 자동으로 가산수당 일괄 지급

○ 2순위 : 인정조사점수 440점 미만이라도 아래 각 호 중 하나 이상 해당되며, 동시에 2개월 이상 활동보조인 연계가 되지 않거나 3개월 간 6회 이상 활동보조인(기관을 달리하는 경우를 포함)의 기피로 활동보조인이 교체된 수급자 중 예산 등 고려하여 시·군·구* 결정

* 활동지원기관·지자체 등 자체 발굴 후 관련 사실관계를 확인(인정조사 기록, 활동보조인 이용 이력, 의사 등 전문가 및 관련자 의견 등)

** 가산수당 지급 여부 결정을 위해 '가산수당 지급 심의기구(가칭)'를 별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 때 이 기구는 수급자격심의회위원회와 동일한 위원으로 구성 가능

- ① 발달장애인 중 공격성, 폭력성 또는 돌발행동 등 행동장애가 심각하여 활동보조 제공에 현저한 곤란이 있는 수급자
- ② 와상, 사지마비와 수급자 특성(몸무게) 등의 요인으로 대소변 처리, 목욕, 이동 등 활동보조에 현저한 곤란이 있는 수급자
- ③ 기타 상기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시·군·구에서 인정하는 수급자

○ 단, 수급자(혹은 수급자 가족 등 주변인)가 급여 제공 범위를 벗어나는 과도한 요구를 했거나, 활동보조인에게 고의 또는 상습적인 폭언·폭행·성추행을 가한 등 그 귀책사유로 인한 활동보조인 미연계와 잦은 교체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2 지원방식

○ 지원 대상인 수급자에 대해 가산수당만큼 월 급여액을 증액하며, 지원대상인 수급자에게 활동보조급여*를 제공한 활동보조인에게 급여 제공 실적에 따라 가산수당 지급

* 활동보조급여에 한해 지원되며, 방문목욕, 방문간호급여 사용과는 무관함에 유의
- 가산수당은 서비스 제공 시 결제단말기를 통해 산정된 인정시간의 범위 내에서 지급

○ 활동보조인 연계 지연 및 교체 내역 확인 방법

- (연계 지연) 수급자가 활동지원기관에서 급여 제공 요청시 작성한 초기상담지 등을 통해 확인
- (잘은 교체) 활동지원기관의 활동보조인 인수인계서* 및 급여제공기록지**와 전자바우처시스템의 변경 등록내역 등을 통해 확인
 - * 활동지원기관 평가지표 38번 관련 사항
 - ** 시행규칙 제24조 및 별지 제11호 서식 관련 사항

3 선정절차

- 지자체-활동지원기관 장기 미연계자 중심으로 대상자 발굴 → 미연계자 가산수당 선정기준 관련 자료확보 → 대상자 가산수당 자격 심의 결정

4 자격관리

1 자격변동(전출입)

- 수급자가 타 시·군·구로 전출시 기존 시·군·구 가산수당 대상자 해지 및 전입 시·군·구에서 재지정
 - * 행복e음상의 자동 전출입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 : 전출입시 해당월까지는 전출지 예산으로 지급처리, 다음달부터는 전입지 예산으로 지급처리('16년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안내 참조)

2 자격관리

- 특별자치도·특별자치시·시·군·구 담당자는 수급자격 상실 및 중단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가산수당 역시 직권으로 즉시 지급 중단 처리
 - * 중단사유 : 수급자가 6개월 이상 연속하여 급여를 이용하지 않았을 때, 수급자가 급여의 중단을 신청할 때 등의 사유('16년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안내 참조)
- 가산수당 지급 자격에만 상실 및 중단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인정점수 하향 등) 가산수당에 대해 직권으로 즉시 지급중단 처리
 - * 직권중단 시 '행복e음'을 통해 자격을 중지해야 하며, '지원 종료일'을 지정하여 전송 가능

* 중지전 송일이 속한 월의 1일 ~ 말일까지 소급하여 “지원 종료일” 지정 가능

3 사후관리

- 대상자 모니터링 및 제공기록지 점검 등을 통해 적정성 확인
 - 보건복지부-지자체-공단-사회보장정보원 합동점검
 - 지자체 지도-점검
 - 공단(활동지원기관 서비스품질 지원반)

5 급여비용

1 산정기준

- 수급자-활동보조인 연계활성화 및 제도의 실효성 제고, 유사서비스 단가 등을 고려하여 시간당 680원 추가 지급 반영
- 연계활성화 효과 극대화를 위하여 추가 지급되는 시간당 680원은 전액 활동보조인에게 수당으로 지급(운영비 활용 불가)

< 서비스 단가 변화 비교 >

단가 항목	'15년	'16년	
	일반 수급자	일반 수급자	가산수당 지급
인건비	6,610원 이상	6,800원 이상	7,480원(6,800+680) 이상
<u>총단가</u>	8,810원	9,000원	9,680원

< 일반, 심야, 공휴일 가산급여 >

분 류	시간당 금액(원)
① 매일 일반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9,000 가산수당 680

② 22시 이후 06시 이전 심야에 제공하는 경우	13,500 가산수당 1,020
③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과 근로자의 날에 제공하는 경우	13,500 가산수당 1,020

2] 소요재원

○ 서울(국비 50%, 지방비 50%), 지방(국비 70%, 지방비 30%)

3] 지급방법

○ 지자체 가산수당 대상자 선정 → 행복e음을 통해 전자바우처시스템에 전송(가산수당 대상자 선정코드 선택) → 바우처 시스템 연동 → 바우처 카드 결제

- * 지자체가 가산수당 대상자 신청 전송 시 지정한 “지원 개시일”부터 지원하며, 중지 전송 시 지정한 “지원 종료일”까지만 지원
- 전송 가능 기한 : 매월 1일부터 27일 18:00시까지

○ 가산수당은 지자체의 대상자 신청 전송 월 익월부터 지급

- 매월 10일까지 전월 바우처 결제 인정시간을 합산하여 지급되며 급여비용과 별도 지급

- * 수급자별로 납부한 본인부담금을 차감하지 않고 전액 정부지원금으로 지급
- 활동보조인이 소속된 활동지원기관으로 일괄 지급되며, 지급계좌는 급여비용 지급계좌와 동일

6

기대효과

○ (제도이용의 만족도 제고) 최종증장애인 활동보조 기피현상을 완화함으로써, 수급자와 활동보조인의 만족도 제고

○ (사각지대 최소화) 가산수당 지급 대상자 선정시 인정조사점수와 최종증장애인의 개별상황을 고려함으로써, 사각지대 최소화 도모

[위 내용은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내용입니다.]

자립생활주택 문화체험

[뮤지컬 <투란도트>관람]

박남주

일요일에 진행하는 문화체험이라 활동보조인 선생님께도 한 달여 전부터 스케줄을 조정해 달라고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가형 입주자 정양균씨께도 잊지 마시라 당부 한 덕분에 모두 스케줄에 관한 착오는 전혀 없었지만 예측불허의 장애인콜택시 대기 시간이 관건이었다.



주말임을 감안하여 장애인 콜택시를 일찍 신청했는데도 2시간이 넘는 대기시간 때문에 애초에 계획하였던 공연 관람 전 점심식사 외식은 공연 관람 후 저녁 식사로 변경해야만 했다. 12시 50분 가까이가 돼서야 겨우 장애인 콜택시를 탈 수 있었던 우리 일행은 마슬마슬하게 공연장에 도착하여 무사히 티켓팅까지 마치고 제 시간에 공연장 객석에 입장할 수 있었다.

투란도트 공연의 첫 장은 몽환적인 느낌의 바다 속을 들여다보는 듯한 느낌으로 연출되어 관객의 눈을 매료했다. 머뭇의 왕의 구매를 거절하다가 강제로 투란도트공주를 임신하게 되고 그녀를 낳은 후 원한에 사무쳐 죽어버린 어머니를 위해 남자들은 욕정과 사랑을 구분 못한다고 믿게 된 투란도트는 절세미녀인 그녀와 결혼하고자 하는 수많은 남자들에게 세 개의 수수께끼를 내고 죽음을 담보로 하는 청혼 게임을 시작한다. 1부의 내용에서는 칼리프왕자가 얼음공주 투란도트에게 반해 수수께끼에 도전하는 줄거리였는데 사실 수많은 청혼자를 죽인 차가운 가슴의 투란도트보다 왕자를 짝사랑하는 순진한 몸종인 류가 더 매력 있는 캐릭터였다.

정양균씨 또한 나와 생각이 같은지 나의 귀에 작게 속삭이며 은근히 류와 칼리프 왕자와의 사랑이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말씀하셨다. 1부가 끝나고 20분의 쉬는 시간동안 화장실에 잠시 다녀온 다음 2부를 관람하였다.

2부에서는 칼리프가 세 개의 수수께끼를 다 맞히지만 여전히 그를 거부하는 투란도트

를 위해 동이 트기 전 자신의 이름을 불러준다면 죽음으로 청혼을 취소하겠다고 약속 하는 바람에 류와 칼리프왕자의 아버지인 왕이 위험에 처하는 내용이 이어졌다. 바람과는 다르게 왕자를 짝사랑하던 몸종 류는 자신의 목숨을 바침으로 진정한 사랑이 존재함을 증명해보이고 그에 생각이 바뀌게 된 투란도트가 칼리프 왕자와 결혼을 결심하게 된다. 사실 캐릭터도 그렇고 배우 생김새도 투란도트보다는 몸종 류가 훨씬 매력적이어서 내심 안타깝고 분한 결말이었다.



공연이 끝나고 허기가 진다며 투덜대는 점양규씨를 모시고 간 곳은 베트남요리 전문점. 양지쌀국수와 월남쌈, 베트남식 불고기덮밥 등을 시켜 먹고 배가 불러 기분이 좋아진 우리 일행은 또다시 귀가를 위해 장애인콜택시를 기다리며 카페에서 하염없이 수다를 떨었다.

장애인콜택시의 길고 지루한 대기 시간과 주말이라 혼잡한데도 불구하고 엘리베이터가 단 세대뿐이라 이용에 불편이 있었던 점등의 불편사항이 있었지만 모두 즐겁게 대화하고 공연을 즐겨주어서 참 다행이었다. 하지만 다음부터는 주말보다는 주중에 계획을 잡아 진행하도록 해야겠다.



강북구청 향의 방문

박계형



강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이하 강북센터)에서는 지난 2월 26일 강북구청을 향의 방문 하였다. 그 첫 번째 이유로는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에 지원 기준마련 촉구 건과 두 번째는 '강북구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조례와 발달장애인지원조례제정운동'에 관한 건으로 향의 방문하였다.

강북구청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9조의2(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의 운영기준)'과 '장애인복지법_시행 2016.6.30.법률 제13663호'에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북구청은 아직까지도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지원은 커녕 기준마련도 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여기에서 법제처에 나와 있는 장애인복지법을 살펴보자.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9조의2(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의 운영기준)'에 따르면 '① 법 제54조제2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이하 "자립생활센터"라 한다)의 의사결정, 서비스제공 및 운영 등은 장애인 주도로 이루어져야 하며, 그 운영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장애인복지법_시행 2016.6.30.법률 제13663호 제4장 자립생활의 지원 제54조(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실현하기 위하여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를 통하여 필요한 각종 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개정2008.2.29., 2010.1.18.>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에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 또는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15.12.29.>'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에 강북센터에서는 강북구 장애인 인구가 17,357만 명에 달하는데 왜 강북구청에서는 아직도 자립생활지원에 관한 확실한 기준도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언제 만들 것인지, 어떤 식으로 자립생활지원에 관한 기준을 정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강북구청에 방문하여 담당자와 신도 깊은 대화를 하였다.

자료출처- '법제처' <http://www.moleg.go.kr>

서울지역 25개 자치구 중 2016년 현재 총 23개의 자치구에서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 조례'가 만들어져 있다. 다시 말해 강북구와 송파구를 제외한 서울지역 모든 자치구에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 조례'가 만들어져 있다는 얘기다. 여기서 우리는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 조례'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 우리 중증장애인들은 그동안 자기 자신이 원하는 바를 선택·결정하고 자기의 삶을 주도적으로 살아가고 싶지만, 장애로 인한 물리적 제약으로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시설 및 집안에서만 생활할 수밖에 없었다.

관한

장애인들도 인간이다. 세상에 인권이 주어진 인간으로 태어나 생물학적으로만 무의미하게 자기의 삶을 살아가고 싶은 사람은 한명도 없을 것이다. 이러한 욕구를 한 단계 발전하여 이루어진 이념이 바로 자립생활이념이다. '자립생활이념'은 인간으로서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고 자신의 삶을 계획하고 실천해 나갈 수 있고, 지역사회에서 지역주민과 함께 살아야한다는 생각을 기초로 한다. 이것이 바로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 조례'의 목적이다.

강북센터가 강북구청에 요구한 사항은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 조례' 뿐만 아니라, '발달장애인지원조례제정'도 요구하였다. '발달장애인지원조례제정' 또한 2014년 기준으로 서울지역 자치구에서 총 10개의 자치구에서 제정되어져 있고, 양천구와 중구는 '지적, 자폐성 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라고 명시되어 있다.

우리 강북센터에서 '강북구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 조례 제정과 발달장애인지원조례제정운동' 건으로 관계 기관과 강북구의원들에게 메일로도 발신한 결과 강북구의원인신 구본승의원님께서 '강북구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 조례제정과 발달장애인지원조례제정'에 관해서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친절한 답변을 보내주셨다. 구본승의원님께서 보내주신 메일 내용을 간략하게 말하자면,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는 지난 1월 경 구의회 내 연구모임인 '조례연구모임(8명 참여 중)'에서 중증장애인자립생활 지원조례 제정을 검토하였고, '조례연구모임'에서 검토 전에 구본승의원님께서 구청 집행부(생활보장과)앞으로 서면질문을 하였는데 이에 대한 강북구청 생활보장과 답변이 부정적임을 확인하고 집행부에 왜 부정적인지를 재차 제기하였으며, 그 후 확인한 결과 구청 집행부에서도 조례제정에 동의한다고 함을 확인하였다고 한다. 조례연구모임에서 4~5월 경, 조례안 작성, 검토하여 발의할 예정이라는 내용이다.

'발달장애인지원조례' 관련해서는 강북센터가 보내준 메일을 확인 후 '발달장애인지원조례'에 대한 정보를 알아 본 결과 작년 말 장애인부모회 관계자로부터 발달장애인지원조례 제정이 필요하다는 민원을 접수하여 자체 준비 중이었음을 알았고, 구본승의원님께서 구의회 전문의원실에 발달장애인지원조례를 타구와 비교해 필요한 자료를 취합을 준비해달라고 하였고, 기존 타구 조례의 내용을 보면 크게 2개의 분류로 나뉘는데, 이중 어떤 조례내용으로 가야할지 검토도 요청하였으며, 구청 생활보장과 팀장과 전화통화를 하여 '발달장애인지원조례제정'의 필요성을 질문한 결과 구두 답변으로 지금 바로 제정하기는 어렵다. 그 이유는 조례의 핵심인 평생교육센터를 세우려면 예산·장소 등이 필요하다는 답변을 들을 수 있었다고 한다.

강북구 장애인 인구가 17,367만 명으로써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조례'와 '발달장애인지원조례제정'은 하루 빨리 만들어져야하고 이는 강북센터만의 힘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으므로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지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자조모임 드림팩토리(종이접기)를 2016년 04월 04일부터 시작합니다.

김소연



강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이하 강북센터)에서는 자조모임 '드림팩토리'라는 일환아래 종이접기('내 꿈을 펼쳐봐!')을 진행하고자 한다. 이에 사전 회의를 3월 22일에 하였고, 이 회의를 통해 첫 번째 자조모임은 다음달 4월 4일로 정하였으며, 앞으로 종이접기 자조모임은 둘째 넷째 월요일에 진행하였으며, 이날 회의에 참석한 회원 분들의 열의를 엿볼 수 있었다.

자세한 내용은 강북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기재되어 있으며, 강북센터 자조모임 종이접기('내 꿈을 펼쳐봐!')에 관심 있는 분들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주몽재활원에 다녀와서…….

김소연

거주시설연계공모사업 사전육구조사의 일환으로 나와 허성현 팀장님과 함께 장애인클락시(이하 장클)를 이용하여 2016년 03월 18일 11시30분경 주몽재활원에 다녀왔다. 생각보다 장클이 빨리 연결이 되는 바람에 점심식사는 주몽학교가 있는 강동구 부근에서 해결을 하고, 본격으로 주몽학교에서 거주시설연계공모사업 사전육구조사를 실시하였다.

스물 살 이전에 내가 생활했던 곳이라서 그런지 반가운 마음도 들었고,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바뀐 환경에 새로운 또한 느낄 수 있었다. 허성현 팀장님과 나는 '주몽재활원'이라는 곳이 아동복지에 속하는 시설이라서 설문하는데 있어서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을까 우려하는 마음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주몽재활원에 계신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덕분에 30명 가까이 되는 원생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할 수 있었다.

30명 가까이 되는 원생들 중에서는 아직 글을 모르는 원생들이 있었으므로 나와 허성현 팀장님은 그런 원생들과 1대1로 설문지를 읽어주어 가며 차분하고 침착하게 설문을 진행해 나갔다. 주몽학교 사회복지사 팀에 계신 선생님께서 체혈흔에 관련하여 허성현 팀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하였고, 나는 아직 배우는 단계라서 허성현 팀장님께 말만 듣고 있으며, 많은 지식과 자상함에 허성현 팀장님이 참 커 보였다. 나도 허성현 팀장님과 같은 사람이 될 수 있을까란 생각이 들었고, 나 또한 열심히 공부도 하고 노력하여 팀장님과 같은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생겼다.

설문조사가 끝난 후 강북센터에서 가지고 온 기념 수건을 나눠주며 고마움을 원생들과 선생님들과도 아쉬운 마음으로 감사하다는 인사를 하였다. 주몽학교 선생님께 설문지를 받고, 주몽학교에 올 때와 마찬가지로 퇴근할 때에도 장클을 불러 팀장님과 나는 각자 집으로 귀가하였으며, 허성현 팀장님께서 주몽재활원 선생님과 원생들이 협조를 잘 해주어 생각보다 빠른 시간에 설문조사를 끝낼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말씀하며, 좋아하시는 모습으로 환한 웃음을 보이셨다.

하지만, 3월 15일에 서울시청에서 하였던 거주시설연계 공모사업 설명회에서는 센터가 있는 구내에 있는 거주시절만 센터와 협약이 가능하다는 설명이 불현 듯 생각이 났다.

집단ILP “배트맨 대 슈퍼맨” 후기

김소연



수유 메가박스에서 1시30분에 도착했다. 영화시간은 2시30분인데 도착해서 사람들이랑 이야기하고 사진 찍고 보니 시간은 금방 지나갔다.

집단ILP 참석인원은 10명이고, 제목은 “배트맨 대 슈퍼맨”이었다. 주변 사람들 얘기로는 재미가 없다고 해서 볼 생각은 안했는데 소장님께 참가하라고 하셔서 가서 보게 되었다.

처음에는 광고가 나오는데 거기서부터 졸고 있었다. 영화 내용을 정리해서 얘기하자니 좀 막막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야기를 이어가 보려고 한다. 배트맨과 슈퍼맨이 싸우면 누가 이길까 라는 소장님께서 질문을 하셔서 “당연히 슈퍼맨이 이기죠!”라고 대답했다. 근데 슈퍼맨이 죽었다.

처음에 배트맨 대 슈퍼맨이 나오기 전에 등장인물이 사람으로 나왔다. (난 나오자마자 배트맨, 슈퍼맨이 나오는 줄 알았음…….) 그 이후로 자서 기억은 안 난다……. 총소리에 놀라 깨서 보니 배트맨과 슈퍼맨이 나오고, 거기서부터 보기



시작했는데…….중간에 원더우먼도 나왔다.

왜 나왔는지는 모르겠는데 잠깐 나오다가 사라지며, 나중에는 배트맨과 슈퍼맨이 한 팀이 되어 어떤(?) 괴물을 물리치다가 슈퍼맨이 괴물을 죽이면서 슈퍼맨도 죽고 말았다. 거기서 게임 오버가 됐다.

그렇게 추천해 주고 싶은 영화는 아닌 것 같다.ㅋㅋ 배트맨 대 슈퍼맨 영화는 3D로 보면 재미있을 것 같다. 움직임의 소리 장난 아닐 거 같다.^^



3.1절에 봉하마을 기행

이하용

3.1절을 맞아 봉하마을에 가고 싶은 마음에 창원에 사는 친구에게 반강제로 나는 초대하라고 협박 아닌 협박으로 친구의 초대를 받아서 머나먼 봉하마을로 활동보조 선생님과 함께 떠나게 되었습니다. 중부고속도로를 지나 경부고속도로를 진입하였으나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눈이 너무 많이 오는 바람에 길이 막혀 8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저는 운전으로 피곤해 하시는 활동보조 선생님께 죄송한 마음과 고마운 마음이 들었지만, 그런 마음을 표현하기란 너무 쑥스럽고 부끄러워서 아무 말도 못한 채 라디오에서 나오는 음악에 귀 기울이며 봉하마을과 15년 지기인 친구가 있는 창원으로 계속 달리 기만 하는 차에 몸을 맡겼습니다.

눈이 와서 위험하고 차가 막혀 지루한 시간을 달려 저는 창원에 도착할 수 있었고, 15년 지기인 친구와도 만나 편안히 쉬 수 있는 모텔에서 회포를 풀었습니다. 친구가 다행히 특실로 예약해놔서 큰 불편한 점이 없지만 도착시간이 너무 늦은 밤이라 문을 연 가게가 없어서 많이 아쉬웠지만, 다행히 치킨과 콜라를 시켜 먹을 수 있어서 우리는 새벽 2시까지 먹고 마시며 오랜만에 만난 친구와 회포를 풀 수 있었습니다.



전날 눈길을 달려 창원에 도착하여 밤늦은 시간까지 회포를 풀었던 나는 너무 피곤한 나머지 새벽닭이 우는지도 모르는 채 오후 12시까지 잠을 자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점심으로 돼지국밥을 먹기로 하였고, 나는 난생처음 돼지국밥을 먹으며 내 입 맛에는 맞지 않았으나 배가 너무 고프지라 맛있게 먹었던 것 같습니다. 그날 먹었던 돼지국밥의 맛은 순대국밥이랑 비슷하나 돼지국밥이 더 느끼한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점심을 먹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생가인 봉하마을로 가기로 결정하고 도착해서 보니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는 정말로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소박하게 살아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생가 맞은편에 있는 추모의집으로 우리는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이곳 노무현 전 대통령의 추모의집은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서거하고 2010년 5월에 건립되었고, 노무현 전 대통령에 여러 가지 유품들과 기록물, 사진, 영상 등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시간이 없는 관계로 이곳에 있는 부엉이바위와 사자바위 등 봉하마을의 다른 모습을 볼 수 없다는 생각에 아쉬웠고, 다음에 꼭 그 곳들을 둘러보겠다는 다짐을 하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그리워하였습니다. 이번 여행을 하면서 나는 많은 추억들과 뜻 깊은 여행이었기에 오래오래 기억에 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달의 정보

‘2016년 강북 IT 희망나눔 사업’

강북구가 ‘2016년 강북 IT 희망나눔 사업’을 실시하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사랑의 PC’를 보급한다.

‘강북 IT 희망나눔’은 행정 업무용으로 사용되다 교체된 정보사무기기 중 재활용이 가능한 PC를 정비하여 주민들에게 무상으로 보급하는 사업이다.

보급대상은 관내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사회복지시설 등 경제적, 신체적, 연령적 요인으로 정보사무기기 보유 및 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정보화 취약계층이다.

보급 수량은 약 100대이며 신청자에 한해 자격요건을 확인한 후 선착순으로 보급한다. 보급 품목은 PC 본체에 한하며 모니터는 별도 제공하지 않는다. 또한 2년 이내 울시 및 강북구로부터 PC를 제공받은 자는 제외한다.

신청서 접수는 4월 1일 오전 9시부터 시작된다. 희망자는 강북구청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하거나 동 주민센터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단, 시설은 복지관련 부서의 추천을 받아 별도 선정한다. 구는 대상자 선정 후 4월 중순부터 순차적으로 PC를 보급하고 기기의 유지관리를 위해 향후 1년간 구청 PC 정비팀의 무상 방문 A/S를 제공한다.

강북구청 정보화지원과장은 “강북 IT 희망나눔 사업은 정보화 취약계층이 IT를 기반으로 한 각종 생활편익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앞으로도 자원 절약과 디지털 나눔을 실천하고 주민들 간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강북구청 정보화지원과(901-7226)로 하면 된다.

출처 - <http://www.gangbuk.go.kr>

서울시, ‘엔젤아이즈 앱’ 시각장애인 888명 모집

앱 사용하는 장애인 423명, 착용형(웨어러블)카메라 무상 제공

서울시가 시각장애인을 위해 웨어러블 카메라와 스마트폰을 연계하여 길 안내 등 일상 생활 전반에 도움을 주는 ‘엔젤 아이즈’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지난해 엔젤아이즈 앱의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100여 명의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2개월간 시범운행을 시행한 바 있으며 시스템 안정화 후 본격적인 서비스 제공에 나서게 됐다고 설명했다.

서울시 거주 시각장애인 중 스마트폰을 사용가능한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며 착용형(웨어러블)카메라와 스마트폰으로 앱을 함께 사용할 시각장애인 423명, 스마트폰 앱

만 사용할 465명 888명의 시각장애인을 모집한다. 엔젤아이즈 앱을 통해 시각장애인이 도움요청 시 도우미(지인 등)에게 전달하는 기능은 물론이고 실시간 영상전송과 양방향 음성통화, 음식물의 유통기한 확인, 우편물 내용 확인, 의약품 복용안내, 대중교통 이용 안내 등이 가능하다.

25일까지 서울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와 장애인 홈페이지(<http://disability.seoul.go.kr>) 에서 온라인 선착순으로 접수하며, 착용형(웨어러블)카메라와 스마트폰으로 앱을 사용하는 장애인 423명에게는 착용형(웨어러블)카메라가 무상(50만원상당)으로 제공된다. 단 서울시 거주확인(주민등록등본)과 장애인증명서등과 같은 관련 서류는 웨어러블카메라 배부와 교육 실시 때 반드시 제출해야한다. 홍순길 장애인복지정책과장은 “엔젤아이즈 앱처럼 시각장애인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IT기술의 발달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http://www.bokjine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43928>

행복을 들려주는 도서관 서비스 확대 구축

기존 음성도서 서비스에 전자도서 서비스 추가

시각장애인연합회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 콘텐츠 서비스인 ‘행복을 들려주는 도서관’에 전자도서관 서비스를 2일부터 통신사와 상관없이 모든 시각장애인들에게 제공한다.

‘행복을 들려주는 도서관’은 SK텔레콤이 2010년 6월 (사)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와 공동으로 개발한 서비스로 4500여권의 음성도서와 36만여건의 뉴스·잡지·재활정보 등 각종 정보를 시각장애인에게 모바일로 제공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음성도서관이다. 또한 본 서비스의 운영과 기능 개선은 SK텔레콤이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금번 전자도서관 서비스의 확대 구축은 시각장애인의 전자도서 이용에 대한 욕구가 증가함에 따라 이루어지게 되었다.

기존 ‘행복을 들려주는 도서관’ 서비스는 육성으로 녹음된 음성 정보만 이용할 수 있었으나, 전자 도서 서비스 추가 구축으로 모바일 단말기에 내장된 TTS(텍스트 음성 변환)를 활용하여 본 연합회가 소장하고 있는 1만 6천여권의 전자(텍스트데이터) 도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대하였다.

이병돈 시각장애인연합회 회장은 “전자도서관 추가 구축으로 음성 도서 뿐만 아니라 우리 연합회가 소장하고 있는 전자도서를 모바일 환경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보다 많은 시각장애인이 시간적 공간적 제약 없이 다양한 형태의 도서를 이용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밝히며, 지속적으로 시각장애인의 욕구를 반영하여 서비스를 개선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전자도서관은 2일에 배포할 예정이며, 안드로이드폰의 경우 플레이스토어에서 ‘행복을 들려주는 도서관’으로 검색하여 앱을 설치하고 인증을 받은 후 이용 가능하며, iOS폰의 경우 앱스토어에서 안드로이드폰과 동일한 방법으로 이용 가능하다. 기존 이용자의 경우 앱 실행 후 안내에 따라 전자도서관이 포함된 앱을 업데이트한 후 이용 가능하

다.

출처- <http://www.bokji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43873>

휠체어 사용 장애아동 어린이집 통학 쉬워져

장애인개조차량도 어린이통학버스 등록 가능,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

장애인개조차량의 어린이통학버스 등록기준이 완화됐다. 어린이집에서 운행하는 어린이통학버스는 9인승 이상 차량 등 요건을 갖추고 관할 경찰서에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장애아동을 위해 휠체어 리프트를 설치한 차량은 승차인원(9인승 이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어린이통학버스로 등록하지 못했었다.

지난 해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에서는 장애인 개조차량도 어린이통학버스로 등록할 수 있도록 경찰청에 건의했다. 12인승 차량이더라도 휠체어리프트를 장착하도록 개조하는 경우 7인승으로 변경되기 때문이다. 이에 경찰청은 장애인용 개조차량이라면 9인승 이하가 되더라도 어린이통학버스로 등록이 가능하도록 개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다.

경찰청은 약속대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4조를 개정해 지난 12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개정된 시행규칙은 어린이통학버스로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는 승차정원 9인승 이상의 자동차로 한다. 이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34조에 따라 튜닝 승인을 받은 자가 9인승 이상의 승용자동차 또는 승합자동차를 장애아동의 승·하차 편의를 위해 9인승 미만으로 튜닝한 경우 그 승용자동차 또는 승합자동차를 포함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출처- <http://www.bokji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43706>

똑똑똑

문을 두드리면 내가 모르는 세계가 열린다.
안에는 수많은 친구가 있고, 맛있는 이야기가 있다.
그러나 매번 그 앞에서 망설이는 것은,
문 안 세상에 대한 궁금증보다 두려움이 앞서기 때문이다.

익숙해진 것을 벗어던질 용기만이
새로운 세상을 볼 수 있는 기회를 만든다.

누가 아는가?
다른 세상에서 당신을 쫓아오는 황금알 낳는 거위 떼를 만나게 될지.....

강예신 『한뼘한뼘』 P 258

16년 03월 회비납부 명단

곽광현 곽삼봉 권운정 김낙현 김두용 김석현 김소연 김숙이
김용자 김은미 김은순 김재환 김종민 김태환 김현실 박계형
박남주 박동열 박민숙 박시연 박원배 배소영 손연숙 안병훈
안해영 예성호 오재준 무의정 유수근 윤두선 이승준 이영석
이영숙 이영훈 이지숙 이하용 이화선 임상욱 장민정 전난희
정종남 정주영 최양호 최윤숙 최창현 홍점표 황석재

회비 납부에 감사드립니다.

강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CMS자동이체 신청서

◆ 수납업체 및 목적 (수납업체 기재란)

수납업체	강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	수납목적	회원회비
대표자	정종남	사업자등록번호	210-82-68864
주소	서울시 강북구 도봉로 328 (가든타워) 906호		

◆ 자동이체 신청내용 (신청고객 기재란)

신청정보	신청인	예금주와 관계 : ()	연락처	
	납부금액	<input type="checkbox"/> 고정금액 (원) <input type="checkbox"/> 변동(추가 계약내용에 따름)	납부일	매월 25 일 *미납시 일, 일 재출금.
금융거래정보	은행명		예금주	
	계좌번호			
	예금주생년월일			
	예금주 휴대전화번호			
개인정보	개인정보 수집및 이용동의	<p>◇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 수집 및 이용목적 : 효성CMS 자동이체를 통한 요금 수납 수집항목 :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은행명, 예금주명, 계좌번호, 예금주 휴대전화번호 보유 및 이용기간 : 수집/이용 동의일 부터 자동이체 종료일(해지일)까지 신청자는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 시 자동이체 신청이 처리되지 않습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p>		
	개인정보 제3자 제공동의	<p>◇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효성에프엠에스㈜, 금융기관(하단 신청가능은행 참조), 통신사(SKT, KT, LGU+, CJ헬로비전)등,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게시(www.efnc.co.kr/제류사 소개 메뉴 내)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자동이체서비스 제공 및 자동이체 동의 사실 통지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은행명, 예금주명, 계좌번호, 예금주 휴대전화번호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동의일부터 자동이체의 종료일(해지일)까지. 단, 관계 법령에 의거 일정기간 동안 보관 신청자는 개인정보에 대해 수납업체가 제 3자에 제공하는 것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 시 자동이체 신청이 처리되지 않습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p>		
<p># 자동이체 동의여부 통지 안내 : 효성에프엠에스㈜ 및 금융기관은 안전한 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예금주 휴대전화번호로 자동이체 동의 사실을 SMS(또는 LMS)로 통지합니다. 신청인(예금주)은 신청정보, 금융거래정보 등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 3자 제공에 동의하여 상기와 같이 강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 회원회비 납부를 위해 효성CMS 자동이체를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청인 : (인) 또는 (서명) (신청인과 예금주가 다를 경우) 예금주 : (인) 또는 서명</p>				

동료상담가 양성교육 <너와 나의 연결고리>

서울시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진행하는 이번 동료상담가 양성교육은 2박 3일로 진행되며, 장애인들의 사회참여와 동료상담가에게 필요한 기술들을 교육을 통해 체득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으로 다음과 같이 진행하고자 합니다. 동료상담가양성교육과정에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양식

- 홈페이지 [<http://www.kbcil.co.kr>]에서 신청서식을 다운받아 작성

☑ 신청방법

- **이메일** [kbcil@hanmail.net]
- **팩스**
인터넷 팩스 : 0303) 0799-1758
팩스 : 02) 908-7877

☑ 문 의

- 박계형 팀장
02) 908-7776, HP : 010-3781-5104

☑ 기 간

- 5월 2일 ~ 5월 4일(기초과정)
- 6월 13일 ~ 6월 15일(심화과정)

☑ 장 소

- **서울여성프라자**
주소 : 서울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54길 18(1호선 대방역 3번 출구)

